

익산시, '쌍릉' 주변 정비 관광자원화 한다

2036년까지 250억 투입 추가 발굴조사·경관 회복사업 추진 인근 토지 매입 관리시설 구축...역사관·방문객 센터 조성도

익산시가 문화재청과 함께 '쌍릉' 주변을 정비해 관광 자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석왕동 쌍릉의 발굴조사와 함께 2036년까지 경관 회복사업 등을 벌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쌍릉과 함께 주변지역을 추가 발굴조사할 예정이다. 쌍릉 인근 토지도 매입해 왕릉관리시설 등을 구축, 전문적인 관리에 나선다.

특히 2036년까지 250억원을 투입해 역사관과 방문객센터 등을 조성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 이 역사관은 재현된 쌍릉과릉의 축조방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된다.

이와 함께 쌍릉의 토층을 단면도 등으로 전사하고 교육자료 활용을 위한 공간도 마련한다.

시는 또 쌍릉이 도로변에서 보일 수 있도록 가시성을 확보해 공원화에 나선다.

익산시 관계자는 "쌍릉이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계속 제시됨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해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철저



익산시가 문화재청과 함께 '쌍릉' 주변을 정비, 관광 자원화에 나선다. 쌍릉 주변 근린공원.

한 고장으로 쌍릉이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쌍릉 소왕릉에서 국내 최초로 석비(石碑)형과 석주(石柱)형 묘표석이 확인됐다.

석비형 묘표석은 일반 비석과 유사하며

길이 125cm, 너비 77cm, 두께 13cm의 크기로 석실 입구에 있다.

석주형 묘표석은 기둥모양으로 길이 110cm, 너비 56cm이며 상부는 등글게 가공됐고, 몸체는 둥근 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귀농·귀촌 영농체험 실습장 생산 농산물 정읍시-도로공사 직거래 납품 계약 체결

정읍시가 최근 한국도로공사와 귀농귀촌 영농체험 실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재 실습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애호박과 옥수수 전량을 호남고속도로 이서휴게소(하행선)에 납품하게 된다.

귀농귀촌 영농체험 실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로 확보를 통해 중간가격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의 농업소득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도로공사는 태인IC 인근의 유휴부지를 시에 제공했으며 시는 제공된 부지에 귀농귀촌 영농체험 실습장을 조성해 올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많은 분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 분야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 석정온천으로 가족힐링 여행 떠나요

내달 2일 '온천대축제'...카테일쇼 등 다양한 체험행사

고창군은 '2019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포스터>를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고창 석정온천 일원에서 연다고 23일 밝혔다.

온천대축제는 온천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온천문화 붐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로, 2007년 울진에서 시작돼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고창 석정온천으로 떠나는 따뜻한 가족 힐링 여행'을 주제로 한 올해 축제에서는 온천수 카테일쇼, 온천 3종 경기, 가족 족욕 체험 등이 마련된다.

석정힐CC 마실길 걷기, 온천발전 학술 심포지엄도 열린다.

행사장 인근에서는 '성 밝기 놀이'로 널리 알려진 '고창 모양성제'도 진행된다.

고창군과 행정안전부, 전북도, 한국온천협회, 대한온천학회, 한국관광공사는 이날 고창군청에서 협약식을 열고 온천대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협약식에서 "계르마음이 함유된 석정온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석정온천을 지역의 뛰어난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저소득층 주거안정 희망 주는 순창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주민 만족도 높아

순창군이 추진하는 '2019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의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순창(경천, 풍산) 장기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계약금을 제외한 가구당 최대

1600만원으로 최장 6년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보금자

리 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해마다 신청 문의가 늘고 있다. 올해도 3가구에 48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

까지 저소득 가구 30세대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해 왔다.

서화순 순창군 농촌주거계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수급자들이 따뜻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며 희망을 품고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양민 기자 jyj@

'남원 소리' 주제 특별한 전시회

김병중미술관 등 3곳서 '사운드 페스티벌' 진행

남원지역의 상징인 소리를 주제로 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 사운드 페스티벌 2019'이 지난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남원시립 김병중미술관과 수지미술관, 남원다음관 등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기획은 남원시 문화도시사업 추진위원회와 남원시립 김병중미술관, 남원다음관, 수지미술관에서 공동주관으로 추진됐다.

페스티벌은 크게 세 개의 소리를 주제로 한 전시회로 방문객을 유혹한다. 세가지 소리 전시는 관객의 행동에 반응하는 사운드 기반인 '행동하는 소리(Sound in Action)'와 소리 치유와 소리풍경 중심의 워크숍 기반인 '마음이 들려주는 소리(Sound in

Heart)', 도시의 과거와 현재 삶의 풍경을 소재로 한 체험형인 '기억하는 소리(Sound in Memory)'이다.

이 중 행동하는 소리는 남원시립 김병중미술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양지운 전시감독(대안공간투프 디렉터)을 중심으로 배민경·다이애나 밴드·권병준·기매리·강영민 작가 등이 참여한 남원의 소리를 주제로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예술작업을 선보인다.

이처럼 국내에서 활동하는 15팀의 작가가 참여해 20여개의 전시작품과 시연을 선보인다.

또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의 사운드 스튜디오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남원시는 '남원 사운드 페스티벌 2019'을 오는 10월 27일까지 남원시립 김병중미술관과 수지미술관, 남원다음관 등에서 운영한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관계자는 "오픈전시회를 시작으로 남원의 소리자원을 다양한 구성과 방법으로 소개한다"면서 "미래지향적인 소리창조

콘텐츠를 가지고 폭넓게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군산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 27일 개최

50여개 업체 낚시·캠핑용품 선배...모터쇼 등 부대행사도

군산시는 캠핑과 낚시용품 박람회인 '2019 새만금 오토·레저 캠핑쇼'를 27일부터 사흘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연다고 23일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외 50여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캠핑용품과 카라반, 낚시용품을 선보인다.

경량 항공기 탑승 체험, 이색 튜닝카를 관람할 수 있는 '신나는 모터쇼' 등의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카라반 애호가 100여명이 1박 2일간 야영을 하며 군산의 유명 맛집과 관광지를 탐방하는 '새만금카라반 페스티벌'도 진행된다.

김성우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새만금지역의 캠핑·레저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 높은 전용면적 75%
- 11,12층 천정고 6M
- 분양가 470만원 ~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 / 공유 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